

(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: Morning service)

설교주제: 유다의 사자 [창세기 49:1-12]

설교자: 레이니어 노퍼 (Reinier Noppers)

1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찌어다 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6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찌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찌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 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찌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

나니아 연대기 영화는 종교관련 영화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글쓴이인 C.S 루이스가 믿는 자들을 위해 이 글을 썼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의 묘사,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놓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. 성경은 사실 이것보다 더 나은 버전입니다.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을 결심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그 분 스스로 해결책을 약속하셨습니다. 오늘 본문 49장에선 이 약속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풀어 펼쳐집니다.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. 가장 첫째 아들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. 유다에게도 축복이 주어집니다. 하지만 이 축복은 유다 자신을 스스로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. 유다는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. 그는 애굽에서 베냐민을 대신해 그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. *33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* (창세기 44:33)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지 않습니까? 이 축복은 유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운 구원의 태피스트리를(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놓은 직물) 펼쳐놓으십니다. 세세한 내용들은 유다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실 미래를 가리킵니다. 사자는 죄가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. 다윗 왕보다 위대한 분이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. 솔로몬 왕보다 위대하며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부유한 자 이십니다. 이 축복은 오실 왕에 관한 것입니다. 또한 이미 오셨고 다실 오실 왕에 관한 것입니다. 이 세상은 그 왕에 관해 거의 바르게 맞췄습니다. 말구유에 오신 어린 예수님의 노래로 말이죠.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선 어떻습니까?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이, 유다의 사자. 그는 우리 집에서 환영받고 있습니까? 우리는 그 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? 그 분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그 분의 힘은 끝이 없습니다 (창세기 49). 역사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. 또한 그 분의 다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(시편 2). 야곱은 *모든 나라들아 그 분을 경배하라* 라고 말했습니다. 빌립보서 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계속됩니다. 우리는 그 분을 경배하며 우리의 일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그 분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? 우리의 귀한 모든 순간들을 그 분의 은혜의 팔안에서 보내고 있습니까? 만약 우리가 그 분을 반대한다 할지라고 그 분은 여전히 우리가 그 분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.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. 그 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완전한 쉼을 가져다주십니다. 요한계시록 5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. 그 분만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그 분만이 오직 책의 인봉을 푸실 수 있으며 그 분만이 오직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. 진정 유다의 사자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실 분이시며 이 성탄절의 축하에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.